

社說

입시정책, 특성화로 자리매김하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수시모집의 활성화와 예능계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98년도 입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던 차에 이번 98년도 입시정책 방향은 입시제도의 다양화와 학생선발의 자율화, 대학의 특성화를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국제화추진 특별전형, 학교장추천 특별전형, 자기특기자 특별전형, 극빈자·효행자·박은사회 선행자 특별전형 등 다양한 수시모집을 통해 특정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도 획일적인 입시제도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을 과감히 수렴하고 있다. 입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민속악기연주, 전통공예, 바둑 등의 특기자, 특별한 기술사 기능사 자격증을 지닌 학생, 영화제요계 등의 수상경력 가진 학생 등도 수시모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어 관련학과와 경우, 토익이나 토를 점수, 일본어 검정시험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입시정책의 획일주의와 편의주의로 인해 아까운 인재들을 사장시키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어왔다. 이번 발표된 입시정책 방향은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 제도는 향후 여타 대학의 입시제도 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시관리의 자율적 분위기가 학교 외적인 힘에 의해서 도중하차되거나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래자 특별전형이 시설 미흡으로 중단되었던 지난 일을 거울삼아 철저한 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오히려 대학에 들어와 재능과 능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빚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입시정책이 학교 발전에 좋은 결과로 남아지기를 기대한다.

임금동결 반드시 철회돼야

지난 27일 발표된 전경련의 30대그룹 임금동결안은 표면적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재계의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안전의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룹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해 주었지만 재계의 이번 발표가 한국 노동계에 큰 파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주장에는 재계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임금을 동결한다는 주장은 국가경제의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경제학적 입장에 입각한 여러가지 부양책과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질수 있는 사안이나 만큼,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계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처사는 말 그대로 '독약처방'에 다름아닌 것이다.

더우기 총액임금 동결안과 맞물려 정리해고제 폐지등의 고용안정을 들고나온 전경련의 주장은 고용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총액임금 동결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양자택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개정노동법과 임금동결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재계의 입장은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도가 아닌 불황 타개를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또한번 강요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년 이루어지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은 노동조합의 가장 큰 대증사업중의 하나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경련의 총액임금에 대한 동결 주장은 노사양자간의 자율적인 임금협상 논의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전경련의 이번 주장은 노동계를 포함한 한국경제에 많은 파문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개정 노동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재계의 이와같은 주장은 노동계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도전보

시론

정보통신 정책 퇴보하는가

능력무한대... 제한적 이용

이 지 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전산팀〉

‘전화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ISDN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의 전화로부터 콜백서비스(Call back service), 인터넷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각 업체에서는 매일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은 각기 다양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저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까지의 독점적 시장체제가 자유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폰이나 ‘공전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며, 조만간 규제가 풀려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한다.

많은 서비스업체들은 규제가 풀릴때만을 기다리며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그러한 서비스가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법적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인터넷폰의 개념

인터넷의 선풍적인 인기는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난 96년을 뒤 흔들어 놓았다. 모든 이들이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기업도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폰은 곧 기존의 ‘전화망(PSTN)’을 대체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전화는 일상생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통신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가 전화의 기능을 하도록 변화되었다. 바로 초기 개발된 인터넷폰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당시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국제전화망을 사내전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뿐 아니라 화상정

보 또한 함께 전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 대 컴퓨터를 통한 연결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였다.

제2세대 인터넷폰은 컴퓨터(PC) 대 전화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한층 발전된 기술이었지만 아직까지 실용화되는 단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제3세대 인터넷폰에 와서야 전화 대 전화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전화와 컴퓨터의 구별은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자화 통화 가능하도록 다시 사내전화체제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예를 들면, (가)업체에서 현재 서울-미국을 이은 인터넷 전용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업체의 직원이 서울 본사에서 미국 본사로 전용선을 이용한 내부전화를 할 때 그 전화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이미 대역된 회사용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단계 더 나가면 공전공서비스가 된다. 공전공서비스는 서울에 사는 (나)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전화를 할때 지역번호 대신 (가)업체에 전화를 걸어 미국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업체는 기존의 전용선을 가지고 미국으로 연결하고 미국에서 사내전화통화로 연결해 준다. 결국 사내전화 두통화 요금이면 국제전화도 가능한 것이다.

결국 (가)업체는 기존에 이용하던 전용선으로 전화를 중계하는 새로운 전화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전까지 국내 사내전화회선에 대해서만 공중전화망과의 공전접속이 허용되었고, 97년 1월 1일부터 사내/시외전화회선에 대해서만 공전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전화회선과 접속된 사내의 전용회선의 공전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대한 정보통신부측의 해명은 공전공서비스의 경우 회선제임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임대한 선로를 가지고 전화사업을 하면 안 되고, 국의 인터넷전화선에 다른 모든 데이터는 지나가도 음성신호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가 전화의 기능을 흡수한지 이미 오래다. 컴퓨터에 전화선만 연결되어있다면 지금에와서는 충분히 전화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 대 컴퓨터의 인터넷폰은 되고 전화 대 전화는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일단 공전공접속은 접어들고라도 외국과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폰과 각종 공전공서비스를 무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그간 준비해왔던 인터넷폰이나 그밖의 사업들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기업들은 경쟁속에서 실력을 배양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사이에 우리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만 하고 멈춰선 것이다.

이제 통신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외국 기업들은 그간에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 진출할 것이고 그간 기술개발을 멈춘 우리는 또다시 외국기업이 돈벌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설득력없는 정책 철회되어야
순발력있는 기술 개발 필요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은 발매된 순발력이 요구된다. 기술개발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하루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겨난다.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경쟁통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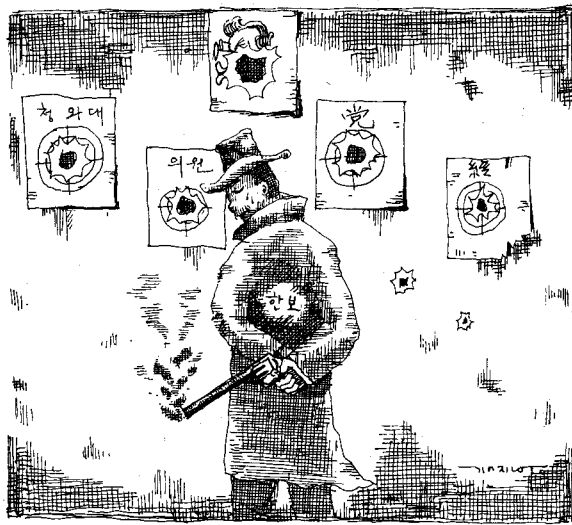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정된 전화사업자만이 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 폐쇄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사업자는 힘겹게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폰이나 공전공서비스는 기존회사를 위협하는 존재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공전공서비스가 자유경쟁에 의해 서비스된다면 그동안 별 어려움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보호받고 있던 전화사업자는 그로 인해 막대한 수입감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와 특혜만이 기업에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아니다. 기업은 이제 자유경쟁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같이 우리 기업도 뛰어야 한다. 결코 뒤러하고 하는 이들의 앞을 막아서는 안된다.

이제 어떤 외국 다국적 통신업체에서 ‘꿈의 섬유, 광케이블을 귀하의 방안까지 끌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난후 후회하면 늦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더 늦기전에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고 황 만 평



같이 죽자...!/?

큰 사람은 큰 계획을 세웁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던
시인의 식취처럼
어김없이 새로운 세계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년을 시작하면서
알찬 계획은 많이 세우셨나요?
명작 감상, 세계속의 인터넷, 영어정복,
배낭여행, 친구만들기 등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면
결과 또한 좋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건전한 이성, 따뜻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지혜의 옷을 입고, 학문을 방패 삼아
세상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큰 계획들을 세워 보십시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

포항제철

